가장 분명한 정책적 표현이 1990년대에 시행된 최저임금제의 강화였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생계수준을 밀도는 저임금을 문제 삼으면서 해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저임금을 비교우위로 삼아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믿는 한인 기업가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었다. 인도네시아 정부 역시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 부자의 자선과 나눔을 강조하는 공동체적 규범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또한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안정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온정주의적 노동시장 개입정책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의 강화에 따라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주의”(UMR-isme)라는 게 생겨났다. 정부고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최소한의 덕목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자들의 도덕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노동정책 경향은 민주화 이후 개정된 노동관계법에도 반영되었다. 비교적 후하게 책정된 해고금 관련 조항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온정주의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향으로 인지하고 부담스럽더라도 이를 감안한 경영이 요구되는 것이다.

3. 현지 노동운동의 특성 : 실용적이고 유연한 활동

최근에 어떤 한인경영자는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강연을 위해 현지를 방문한 단체 인사들에게 “그대들에게 배울 것 없다, 필요하면 우리가 노동부장관, 법무부장관 다 만나고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그렇지만 한인기업가들의 현지 인식은 자기완결적일 수 없다. 아마 가장 잘못 이해해온 대상이 현지의 노동운동일 것이다. 어떤 한인 경영자는 “노동조합 하는 애들 다 빨갱이 아니냐”며 강한 반노동조합주의를 드러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은 이념적으로 온건하다. 유일하게 좌파이념을 천명했던 인도네시아노동자투쟁전선(FNPBI)은 소수파에 불과하고 조직화 실패로 최근에는 유명무실해졌다. 민주화 이후 많은 한인기업가들과 현지주재공관이 노동조합의 대대적인 약진을 우려하였지만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 여전히 분산적이다. 80여개의 전국노조와 정확한 수를 알 수 없는 지역노조들이 병렬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한인기업가 대다수의 인식과 달리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은 기업경영에 순기능적일 수도 있다. 학자들은 노조의 경영상 순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된다. 첫째, 노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voice) 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사직”(exit)을 저항의 수단으로 삼지 않게 되는데, 반대로 노조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여 노동자들이 사직을 항의의 주된 수단으로 삼으면 노동자 교체율이 높아져서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둘째, 노조는 생산조직의 편성과 운영을 개선하는데 현장감 있는 제안을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Islam and Chowdhury 2000: 146-47, 151-53). 이렇게 노조의 경영에 대한 순기능을 인정한다면 한인기업가들이 민주화를 좀더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기에는 한국의 경험뿐만 아니라 미지의 인도네시아 노동운동에 대한 공포가 역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노조를 기피하는 노조공포증도 문제지만 신규 노조나 노동자 저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도 문제였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운동의 특수한 강점은 한인기업가들이 잘못 가정하고 우려한 강력한 이념이나 조직력이 아니라 그들의 약체성을 보완하는 대안적 교섭방식과 자원을 동원하는 유연성에 있으며, 이런 강점을 한인기업가들이 앞 장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무시하였던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운동은 공직자와 정치인의 중재를 실용적으로 동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온정주의적 정치문화도 노동자들이 대안적 교섭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형성해 준다. 그래서 파업노동자들이 노동부와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시위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정치적 교섭”(political bargaining)을 통해서 기업 내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서의 약한 교섭능력을 만회하려는 시도가 빈번했던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은 국제연대조직의 후원을 실용적으로 동원하는데 익숙하고 국제인권운동 및 노동운동조직들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막대한 관심이 활발하고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가능케 한다. 결국 한인기업 노사분규는 사내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부로, 의회로, 세계로 번져나가 정치적 중재와 다국적 액션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향후에는 한인기업문제의 국제화가 두드러질 것이다. 글로벌화가 자본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국제화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전과 보급이 노동운동의 국제화를 위한 기술적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민주화 이후에 국제기구의 활동과 개입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한인기업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미의 소비자 운동은 다국적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압력을 가해 기업윤리강령(Code of Conduct) 제정을 일찍이 실현시킨데 이어서 이제는 다국적 기업의 협조를 구해 직접 노동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지 노동운동단체들과 잘 연결된 모니터 요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착취공장의 제품이 자기 대학교의 로고를 달고 납품되는 것에 반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소비자 운동에서 출발한 노동권콘소시엄(WRC)은 하청생산공장들을 직접 감시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자카르타에 네 명의 상근 모니터 요원들이 숙식할 수 있는 지부를 설립하였다. 이 단체의 아시아담당관은 동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투자된 한인기업들이 모니터 대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한국 의류 업체의 이름을 줄줄 외울 정도로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Schmaedick 인터뷰, 2003/09/24).

민주화 이후 전반적인 자유화와 노동운동의 고양을 부담스러워하는 한인기업가들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살려면 군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종종 피력한다. 그러나 노사분규를 포함하여 정치사회적 문제에 군이 깊숙이 개입하는 예전 방식으로 복귀하길 고대한다면 시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한 기대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민-군 관계는 기업가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3년의 마르시나(Marsinah) 사건이 좋은 교훈을 준다. 시도아르조(Sidoarjo)의 화인 소유 시계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자 지역 군정보부가 개입하여 주동자들에게 사직서를 받아내고 회사에는 돈을 요구하였다. 게다가 파업주동자 중에 하나인 마르시나를 소환하여 강간하고 고문하고 칼로 찔러 살해하여 숲 속에다 내다 버렸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내외에 큰 파장을 일으키자 군은 살해 혐의를 경영자 측에 뒤집어 씌웠고 관리자들이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인도네시아의 군은 스스로를 위해 일하지 기업가들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더구나 구체제 하의 억압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장에서 공장으로 계속되었다. 군부의 노동통제 능력에 대한 과잉기대가 노동집약적 한인기업체들이 투자초창기에 범한 첫 번째 오해였다는 점을 되새겨볼만 하다. 따라서 기업가들이 정력을 쏟아야 할 바는 군과의 교섭이 아니라 직원들과의 직접 교섭이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한인기업들은 한국에서 자본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개발독재 시대에 성행했던 경영방식도 가져갔다. 값싼 노동의 추구하고 병영식 노동통제는 수하르토 시대의 온정주의적 노동시장 정책과 정책적으로 어긋나고 현지노동자들과 문화적 갈등을 일으켰으며, 강경한 반노동조합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불필요하게 공격적이었다.

한인기업 노사분규의 심화는 한인기업가들의 단순한 경영기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지 지식의 빈곤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투자 초창기에는 현지의 규범과 정치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마치 ‘근대화주의자’처럼 무시함으로써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한국의 발전주의가 심어준 노동배제의 기억은 인도네시아의 온정주의적 정책과 문화를 간파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역시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 놀랐던 기업가들의 기억은 인도네시아의 노동조합운동을 직시하는데 장애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인기업인들이 충분한 현지 지식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족적인 태도도 현지 지식의 빈곤상태를 지속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그동안 한인기업과 관계된 외교공관, 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등의 기관들은 일부 법령, 정세 동향, 생활예절과 안전수칙 등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였지 심층적인 지식을 전달해주지는 못했다. 한인기업 노동문제의 격화는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지 지식의 빈곤이라는 요인이 부각되어야 하며, 그 대책으로서 기업가집단과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재학습하려는 구상과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권태하(1994).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상)**. 서울 : 중앙일보사.
- 블록, 프레드(1985). **지배하지 않는 지배계급**. 임영일,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 : 자본주의와 그 국가이론**. 서울 : 까치.
- 신윤환(1995). 인도네시아 진출 한인기업의 노사관계 : ‘한국적 경영방식’ 이미지 형성과 ‘노동자 담론’의 확산. **사회과학연구** 4. 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
- _____(2001). **인도네시아의 정치경제 : 수하르토 시대의 국가, 자본, 노동**.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전제성 편(1999). **인도네시아 투자 한인기업 노동문제 조사 면접기록, 1995-1998**. 서울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 월간CEO**. 2005/04. “Asia Market : 인도네시아 특집.”
- 전제성(1998). **경제성장과 정당성 사이에서 : 1990년대 노사분규 폭증과 인도네시아 정부**. **동남아시아연구** 6. 한국동남아학회.
- _____(1999). 경제위기, 정치개혁,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노동문제 : 자보따백의 의류·신발 업종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8. 한국동남아학회.
- _____(2003a). **동아시아 발전모델과 노동억압 : 수하르토 체제하의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 (여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_____ (2005).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산업관계의 변화 : 노동법 개정의 내용과 과정 분석. 윤진표 편. *동남아의 구조조정과 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 폴리테이아.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1998). “인도네시아 안내자료.” (7월).
- 한국국제노동재단(2003).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 서울 : 한국국제노동재단.
- Anam, Choirul(2001). Pengaduan Buruh PT. R(R 기업 노동자들의 호소). 1월 28일 이메일.
- Aspinall, Edward(1999). Democratisation, the Working Class and the Indonesian Transition. *RIMA* 33(2).
- Aurora, Leony(2005). “Korean Business : Late Start, Fast Growth.” *The Jakarta Post* June 16.
- BKPM(1998). *Statistik Investasi*(투자통계). Jakarta : BKPM(Bo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인도네시아투자조정청).
- _____ (1999). *Monthly Investment Report. December 1999*. Jakarta : BKPM.
- _____ (2005). Trend of Foreign Investment Planning Approvals by Country of Origin. <http://www.bkpm.go.id/bkpm/dt/Dt-021.html>(검색일 : 2005/09/25).
- Clean Clothes Campaign. 2005. P사에 관한 홈페이지 게시물들. <http://cleanclothes.org/urgent/05-09-05.htm>(검색일 : 2005/09/25).
- Djarot, Slamet Rahardjo(2003). *Marsinah : Cry Justice*(마르시나 사건에 관한 영화 VCD).
- Geertz, Clifford(1963). *Agricultural Involution : The Process of Ecological Change in Indonesi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slam, Iyanatul, & Anis Chowdhury(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East Asia : Post-Crisis Debat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Jellinek, Lea(1987). Three Petty Entrepreneurs : The Wheel of Fortune. Michael Pinches and Salim Lakha, eds., *Wage Labour and Social Change : The Proletariat in Asia and the Pacific*. Clayton : Centre of Southeast Asian Studies, Monash University.
- Jeon, Je-Seong & Kim Jee Hun(2001). Against All Odds : The ‘Second Korean Boom’ in the Post-Suharto's Indonesia. The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ASEAN Inter-University Seminar on Social Development, Singapore, 23-25 May 2001.
- Magnis-Suseno, Franz(1997). *Javanese Ethics and World-View : The Javanese Idea of the Good Life*. Jakarta : Gramedia.
- Maning, Chris(1993). Structural Change and Industrial Relations during the Soeharto Period : An Approaching Crisis? *Bulletin of Indonesian Economic Studies* 29(2).
- Scott, James C.(1983). Everyday Forms of Class Struggle between Ex-Patrons and Ex-Clients : The Green Revolution in Kedah, Malays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4(4).
- Shin, Yoon Hwan & You-Il Lee(1995). Korea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25(2).

Straits Times. 1997/04/30. South Korea Firms Will Leave Indonesia If Strikes Continue.

<http://straitstimes.asia1.com/pages/stgea6.html>

Suziani(2001). Bentuk-bentuk Pelecehan Seksual di Tempat Kerja, Reaksi Korban dan Masyarakat serta Strategi Menghadapinya. 미간행 보고서(December).

인터뷰

김재민(남). 인도네시아 한인회 총무. 2005/01.

송창근(남). 한인상공회의소(KADIN Korea) 부회장. 2005/07/26.

Anam, Choirul(남). 법률구조재단 말랑분소(LBH Pos Malang) 활동가, 2001/01, 05.

Razak, Abdul(남). 자보따백지역 노동운동단체 박띠 빠르띠위(Bakti Pertiwi) 활동가, 2002/05.

Schmaedick, Agatha(여). 노동권콘소시엄(WRC) 아시아프로그램담당관, 2003/09/24.

Tomas(남). 변영노조(SBSI) 의류섬유부문노조(Garteks) 자보따백지부 간부, 2000/02.

D사 공장장(남). 1998/08.

L사 현지인 사원(남). 2003/11/01.

P사 공장장(남). 2003/07/11.

P사 해고자들. 2003/07/11.

R사 사장부인. 2003/03.

R사 해고자들. 2003/01.